

독일의 도서출판현황과 유통시스템

'90韓·獨 출판협력 세미나 지상중계

'독일도서전'과 함께 한국과 독일 출판계의 보다 활발한 출판교류를 목적으로 준비된 '90한·독 출판세미나'가 지난 11월6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해외출판계의 현황을 적극 소개해 국제화추세에 발맞추겠다"는 개최목적에 따라 '독일의 도서출판 현황'과 '독일의 출판인 양성제도'(이상 K.G. 자우어 뮌헨 자우어출판사대표 발표) 등의 내용이 중점 소개됐고,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의 국제출판계에서의 역할'(한스 미하엘 펜델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전시기획부장)과 '한·독 출판협력방안'(나춘호 출판부회장 겸 예림당대표) 등이 발표, 양국 출판인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나춘호 출판부회장은 "한국과 독일의 출판인들이 직접 대면한 이 자리가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독일출판계의 서울 도서전시회 정기적 참가 ▲순회도서전시회 및 출판·문화 관계세미나 교환개최 ▲번역도서출판을 위한 지원제도 설치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된 관심은 K.G. 자우어 씨의 발표내용에 쏠렸는데, 그는 '독일의 출판인 양성제도'를 ▲직업재교육과정인 출판인학교 ▲유망한 출판인 양성기관인 출판인전문학교, 그리고 ▲서적상과 출판인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일반서점내 재교육과 전환교육과정 ▲전문인을 위한 계속교육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소개, 우리의 출판교육과 좋은 대조를 보여줬다.

다음은 자우어 씨의 또다른 주제발표인 '독일의 도서출판현황 - 도서유통시스템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독일출판사들의 소유형태는 대부분 개인소유, 창업자의 가족소유라는 특징을 지닌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스프링거, 벡, 루프레히트 등의 많은 출판사들도 창업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소유의 형태로 관리돼오고 있다.

또 독일의 책들은 대개 소형책자 또는 페이퍼백(약 20%)의 형태로 출간된다. 거의가 독일어(약 98%)로 발행되지만 수학 자연과학 및 의학분야의 도서들은 소량으로 영어로 출판된다.

독일과 유럽을 통틀어 가장 큰 출판도시는 뮌헨이다. 뮌헨에는 300개 이상의 출판사가

모여 있고, 매년 1만4천종의 신간도서를 발행한다. 그 다음으로 큰 출판도시는 슈트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의 순이다. 독일내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이같은 서열은 다소 바뀔 전망이다. 라이프치히(18세기부터 193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박람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등 출판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았으나, 194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명성은 시들어갔다)가 다시금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통일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출판사들이 새로 이전할 가능성도 크다.

독일에는 모든 출판사와 서적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을 위한 중심조직체로서 독일도서유통

거래협회가 있다. 1825년 라이프치히에서 설립된 이후 통독(1990년 10월3일) 때까지는 '라이프치히 도서유통거래협회'라는 창립 당시의 이름으로 존속됐다. 한편 '서독도서유통거래협회'(1946년)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들어졌으나 이 두 거래협회는 통일 이후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도서유통시스템은 바로 이 협회내에 출판사와 일반서적상, 서적도매상, 중간도매상 등이 결합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협회에서는 독일 서적상들을 위한 도서정보지(1834년)를 발행하고 있다. 이 정보지는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주일에 2번, 라이프치히에서는 일주일에 1번 나온다. 출판계와 도서유통계에 관한 모든 범주를 다루는 전문잡지로서 서점과 도서관, 출판사들의 창립이나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 등 출판계 소식들이 실려 있다. 이 협회에서는 독일서적상학교를 만들어 서적상학습과정을 개설해 서적인 교육과 양성에 힘쓰기도 한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도서평화상' 수상도 주관하고 있다.

전문유통시스템 두어 신속·정확한 배본

독일에는 여느 나라들과는 틀린 아주 특이한 도서유통체제가 발전돼 왔다. 즉, 출판사들의 종합창고업무에 대신하고 출판사의 주문에 따라 서점과 도서관 등에 책을 배달해주는 대행업체들의 발달이 그것인데, 현재 20개 정도가 있다. 이중 가장 큰 회사로는 약 200개의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종합창고업무와 배본업무를 대행하는 코흐, 네프&외팅거 등을

독일의 도서유통시스템은

모든 출판사와 서적도매상,

그리고 소매상들이

독일도서유통거래협회라는 기구 안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또하나 특징적인 것은

출판사의 종합창고업무 및 서점과

도서관으로의 배본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업체들이 잘 발달돼 있다는 점이다.

뽑을 수 있다.

이러한 업무대행사를 통해서 출판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편집, 발행업무, 마케팅기능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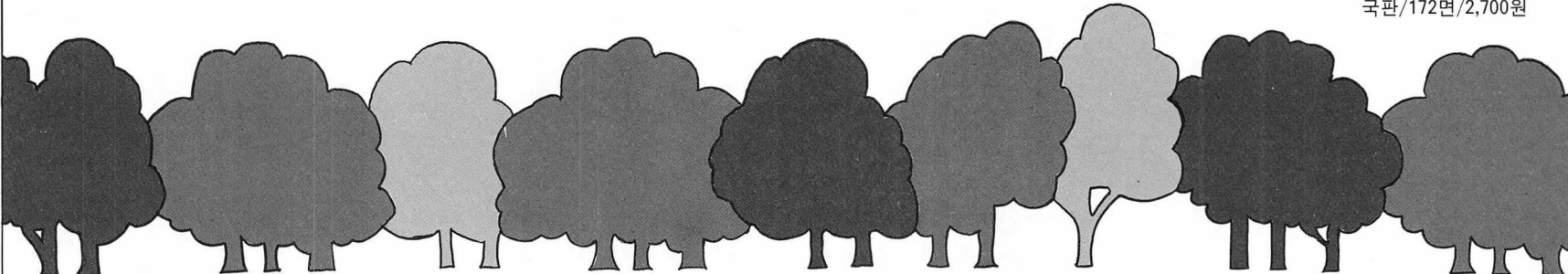
이 대행사들을 통한 유통업무는 매우 합리적이어서 어떤 주문에 대해서도 수일내에 고객들에게 배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책이 이미 매절됐다든지 혹은 언제 다시 배달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밖에 옛 동독의 링겐브란크 도서유통회사, 독일 최대의 학습과교서 출판사인 에른스트 크레트사(슈트트가르트)부설 도서유통회사, 그리고 뮌헨에 있는 칼 한저, 올데베르크, 그레페&운제르, 우르반&슈발겐베르그 등 4개 출판사가 공동출자해 만든 출판인서비스 센터도 중요한 도서유통기구로 한몫을 한다.

향나무 우거진 이 산으로

한나 허나드/유영란 옮김

「높은 데서 사슴처럼」의 속편인 이 책은 비겁함, 두려움, 우울함, 쓸쓸함, 무서움의 약한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은총과 명랑, 기쁨, 평화, 동정심, 겸손으로 변화하는 이야기이다.

국판/172면/2,700원



성바오로출판사

성바오로서원

명동 776/2941 정동 779/3793 미아동 984/1611 저동 278/6607 논현동 548/3623 천호동 483/5165 부산 465/2173 대구 425/5185 인천 72/7830 전주 252/3398 대전 254/3089 광주 528/1004 울산 43/3133 마산 48/3089

서울 도봉구 미아 4동 103 ☎ 984-1611 FAX. (02) 984-3612



지난 6일 출판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던 '90 한국-독 출판협력 세미나' 전경.

그의 일부 출판사는 자체 도서유통체계를 스스로 조직해 책을 배달하기도 한다. 결국 독일 도서유통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본,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비해 조직화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출판사와 서점의 중간다리 '바르졸티멘트'

독일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매우 특이한 도서판매 형태가 발달해 왔다. '바르졸티멘트'라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50만권의 책들이 유통되는데 이중 대부분은 아주 작은 창고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분야, 즉 전문서적들이다. 서점에는 이중 약 15만권 정도가 판매되는데, 이들 책은 모두 바르졸티멘트라는 형식으로 창고에 보관됐다가 서점으로 배달된다. 서점들이 필요한 도서를 출판사에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바르졸티멘트로부터 배달되는 판매구조이다. 출판사와 바르졸티멘트 간에는

특별조건의 협정을 맺어 높은 할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르졸티멘트는 다시금 서점에 약간의 할인을 보장하게 된다.

이런 유통시스템은 서적상들에게 큰 이점이 된다. 우선 배본이 하루 사이에 이뤄지고, 서점은 약 2천개에 달하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도서들을 오직 한 주소로만 주문하면 되며, 한달에 한번씩만 종합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따라서 서점들은 장부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욱 서점일을 합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로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으로 광범위한 도서유통업무를 맡은 베그너사가 있다. 함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에 큰 창고를 갖고 전 독일에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오르그 링케브링크사, 그리고 지방의 읍브라이트, 제팅 등도 손꼽힌다.

독일출판사와 서적상들은 전국에 폭넓게

퍼져 있는 서점들과 유기적인 연결망을 단단히 구축해놓고 있다. 대중문학, 예술 및 아동도서, 소형책 등을 발간하는, 즉 대중과 가까운 출판사는 '대리인'이란 형태를 통해서 각 서점들에 정보를 제공한다. 대리인들은 일년에 두차례 출판사들의 새로운 출판계획을 서점에 알려주고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들은 어떤 제목의 책들이 특히 잘 팔리는지 등을 조언하며,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행사도 공동주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넓히기 위한 일들을 한다.

독일도서판매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의 독일어권을 포함한 국내시장판매(약 92.5%)가 주다. 나머지 7.5% 정도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책들인데, 출판사 자체내에서 해외수출업무까지 담당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스프링거, 티메, 발터 데 그뤼텔, 그리고 자우어출판사 같은 소수의 대형출판사만이 자체 수출부서가 있어 도서수출에 전념할 뿐이다.

대부분은 수출전문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수출을 한다. 함부르크에 있는 링겐브링크사나 베그너그룹사는 2차대전 이후 매우 적극적으로 수출시스템을 구축시켜온 대표적인 수출전문회사들이다. 따라서 외국의 서적상들은 몇개 대형 도서수출회사의 주소만 갖고 있으면 독일에서 출판되는 거의 모든 도서들을 구입할 수 있고, 별도로 독일의 어느 출판사에서 어떤 제목의 책이 나왔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비스바덴에 있는 오토 하라소비취사 역시 독일도서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회사는 전세계의 도서관에 납품할 뿐 아니라 전체

도서목록을 만들어 자문하는 일을 전문화시켰다. 이밖에 동구권지역의 도서공급은 구본&자그너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의 도서전시회 주축로 출판역량 알려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도서박람회로 발전하였다. 8천5백개 이상의 전시대를 갖고 있는 이 박람회는 올해에는 88개국이 참가, 세계최대 규모의 국제간 출판물교류가 이뤄졌다. 독일출판사들에게는 전세계의 서적상 및 출판사들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이들과 공동출판 및 판권계약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독일유통거래협회의 전시담당회사에서는 매년 전세계를 돌며 3, 4회의 독일 도서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크게 2개로 나뉘는데, 독일출판사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전시회'와 얼마전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독문학회나 몬트리올에서 열린 철학학회와 같은 '특별전시회'로 나뉜다.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독일도서전'은 국가전시회 형태다.

이들 전시회는 독일의 정신적인 문화수준과 독일의 현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외무부의 재정적 지원과 괴테 인스티튜트의 정책적 지원을 크게 받는다. 이런 점들은 독일 도서가 전세계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기본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 정리·정혜옥 기자

조용한 산사(山寺)에서 수행하며 구도하던 한 스님이 어느 날 문득 떠올린 세계여행!



스님은 동키호테? 이 즉흥적 발상의 세계여행은 그야말로 빈손에 걸망 하나만을 챙겨 든, 모험극을 방불할 만한 여행일 수밖에 없었다.



밑 짚모자와 고무신, 그리고 걸망 하나로 여행준비는 OK. 우리 모두 동키호테 스님과 함께 세계를 향해 떠나 보자.



실수연발 원담스님 세계여행기

걸망 속에 세계를 담고

황당한 여행 계획과 짧은 어학 실력, 그리고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도전한 스님의 세계 여행은 재치와 배짱으로 이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 원담 지음/값 3,500 원

720-5990-1 **진선출판사**